

정신과 치료 1등급 의료기관 55곳 발표

경상권 115곳 · 경기 103곳 · 충청 49곳 등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5695건 대상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의료기관이 55곳이라고 4일 발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적정성 평가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기존의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의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만 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15.3%인 55개 기관이다.

권역별 1등급 기관을 보면 경상권이 115개로 가장 많고 경기권 103개, 충청권 49개, 전라권 44개, 서울 29개, 강원권 14개, 제주 5개 등이다.

평가 대상자는 남성이 5만

2572명(69.5%)으로 여성보다 약 2.3배 많았다. 40~70세가 83.0%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의료기관의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개인 정신치료 2.2회, 그 외의 정신요법 2.5회 실시했다.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 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입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보다

길었다.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환자 특성별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 확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허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무안군 운남면 복지공동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실시

무안군 운남면(면장 박종학) 복지공동체는 지난 10월 29일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동절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복지공동체 5명은 독거노인 가정 김 모 어르신 댁을 방문해 가스레인지의 새로 교체하고 벽지를 도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은 “가스레인지도 고장나고 벽지도 곰팡이가 생겨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

렇게 복지공동체들과 면사무소의 관심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종학 면장은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학부모지원단 연수’

광주시교육청, 특수학교 간 네트워크 형성



광주시교육청이 당초 9월 실시 예정이었던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학부모지원단 연수’를 코로나19로 일정을 변경해 특수학교 학부모와 교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일 개최했다.

이날 연수에는 자유학기·학년제에 대한 정책 이해와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5개 특수학교 학부모지원단이 한자리에 모여 특수학교 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남원 한울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유학기·학년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학부모지원단의 역할 인식과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학부모지원단으로서 실질

적인 역할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했다.

자유학기·학년제 학부모지원단은 자유학기·학년제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체험활동 지원, 재능기부, 자유학기 활동 보조 및 행사 지원 등 장애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부모지원단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강영과장은 “내년에는 5개 특수학교 모두 자유학년제를 시행함에 따라 더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소통하며 장애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영암군, 집수리 봉사

영암군 도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대상자를 발굴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추진하여 제공하였다.

이번 사업은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2세대에 대하여 진행된 ‘똑딱! 똑딱! 사랑의 집수리 봉사 사업’으로, 방충망이 노후되었으며 도배·장판이 찢어지고 곰팡이로 얼룩져 위생상태가 불량한 상태였기에 방충망 시공 및 도배·장판 교체로 쾌적하고 예쁜 공간을 제공하였다.

대상 가구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배를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두 손을 꼭 잡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띄웠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 월야면 복지공동체, 생활불편개선

취약계층에 보일러수리·전등 LED 교체



함평군 월야면 복지공동체(대장 정정호)는 4일 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불편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복지공동체 10여 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독거노인 세대(8개소)를 방문해 노후 보일러를 수리하고 기존 전등을 LED로 교체했다.

가파른 경사로 낙상 위험이 높았던 기존 출입구에 계단을 설치, 본격적인 동절기에 앞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지역 9개 읍·면에 총 77명으로 구성된 ‘함평군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조직된 민·관 협력 봉사대다.

마을이장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비롯해 의료·전기·집수리·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월야면에서는 총 12명의 회원이 재능기부를 통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